

소설과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 해석

이신형*

1. 정치적 해석의 필요성
2.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 해석
3.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정치적 해석
4. 일그러진 영웅의 단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국문요약

이 글은 영화가 제시하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다각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설과 영화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시도한다.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다각적 인식은 영화에서 기인한다. 소설에 따르면 한병태의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다. 40대의 한병태는 기억속의 자기영웅이었던 엄석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목격한다. 한편 한병태의 미묘한 자의식을 중심으로 바라보다면 한병태는 우리들 (대중)에게 있어서 일그러진 영웅이다.

반면에 영화에 의하면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가 아니다. 영화는 엄석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려내지 않는다. 영화가 그려내는 일그러진 영웅은 한병태와 6학년 담임선생이다. 영화는 한병태와 6학년 담임선생을 일그러진 영웅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영팔과 5학년 담임선생님의 장례식장에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6학년

* 전주대학교,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교수

담임선생님을 등장시킨다.

따라서 이 글은 영화가 그려내는 한병태와 엄석대, 한병태와 영팔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과 영화가 제시하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적 성찰에 2장과 4장을 할애하며, 마지막 4장에서 감독이 그려내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제시된다. 특히 여기서 영팔과 6학년 담임선생님에 부여한 감독의 의미가 비평적으로 재해석되며, 한병태와 6학년 담임선생을 통해서 표상되는 일그러짐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된다.

(주제어: 일그러진 영웅, 유리창 청소, 기찻길, 자유가 새겨진 동전, 탄피, 교실)

1. 정치적 해석의 필요성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40대 중반의 한병태가 자유당 말기인 초등학교 5학년인 한병태의 경험을 진술하는 일인칭 소설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병태의 자의식에 집중한다. 소설에서 반영된 한병태의 자의식에는 두 개의 자아가 겹쳐져 있다. 40대 중반의 한병태의 자아와 초등학교 5학년인 한병태의 자아가 그것이다. 전자의 한병태가 후자의 한병태를 회상하고 경험하는 자의식의 밖에는 두 개의 시대상황이 있다. 자유당 말기의 시대적 상황과 전두환 정권 말기와 노태우 정권이 시작되는 5공화국의 시대상이 그것이다. 이문열은 두 개의 삶의 자리의 테두리에 두 개의 자의식을 겹쳐 놓는 방식을 통해서 자칫 단조로 올 수 있는 전개방식을 탈피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안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40중반의 한병태가 초등학교 5학년의 한병태의 경험을 경험하는 주체적 의식세계와

엄석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실인 교실이다. 이야기는 40대 중반의 한병태가 초등학교 5학년의 한병태의 경험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은 40대 중반의 한병태가 초등학교 5학년의 한병태가 경험한 엄석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세계와의 부딪침, 좌절 및 엄석대의 현실 안으로 수용됨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엄석대의 현실의 붕괴에 대해서 담담하게 진술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로서 한병태의 주체적 자의식의 경험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중심에 자리매김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한병태가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웅'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의미성을 염두에 둔다면 소설제목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다 적합한 인물은 엄석대이다.

물론 독자에게는 엄석대에게 억눌린 현실을 개혁하려는 한병태의 의식의 태동, 활동 및 굴복의 일련의 과정에서 한병태가 일그러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병태가 소설의 제목에 걸맞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의 제목에 보다 적합한 인물은 엄석대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의 한병태의 의식에는 엄석대가 좌절된 자신을 구원하는 영웅¹⁾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둘째는 새로운 담임 선생의 출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몰락한 엄석대²⁾와 30년 지난 시간에서 우연히 보게 된 엄석대의 모습에서 한병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 한병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들의 - 일그러진 영웅³⁾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어령은 한병태의 내면세계가 보이는 복잡성이 엄석대와 새로운 담임선생 같은 인물의 단순성을 넘어선 높은 문학적인 경지를 이루

1)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84쪽.

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11쪽.

3)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41쪽.

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어령에 따르면 엄석대에 의한, 엄석대를 향한 한병태의 복잡한 심리현상이 빚어낸 양립적인 갈등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실이 한국 전체의 상황이 되고, 엄석대의 일생이 한 정치사의 알레고리가 되는 단순한 도식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⁴⁾ 따라서 이어령에 의하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는 학교라는 실재에 반영되는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 한병태의 의식세계의 미묘성과 복잡성이 반영하는 지식인의 자의식 즉, “악에 대한 단세포적인 저항도, 선에 대한 맹목적인 신도도 될 수 없는 양립적인 갈등”에 있다.⁵⁾

한병태의 의식의 아이러니에 담겨진 이어령의 관점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실존론적 해석을 지향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실존론적 해석의 지향은 이어령만이 아니다. 한원균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그려내는 것은 개인과 사회사이의 불일치, 전체논리에 어떻게 한 개인이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공간의 배경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⁶⁾ 엄석대가 아니라 한병태의 의식의 복잡미묘성에만 주목하는 이어령의 관심은 정당한 것일까? 한병태가 경험한 학교현실이 반영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현실성은 한병태의 의식의 복잡성을 그려내기 위한 배경으로만 설정되는 것은 타당할까?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91년에 박종원 감독에 의해서 제

4) 이어령, 『도식성을 벗어난 높은 문학적 경지』,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07쪽.

5) 이어령, 『도식성을 벗어난 높은 문학적 경지』,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07쪽.

6) 한원균, 『작품해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46-147쪽.

작되었다. 통상적으로 원작을 영상으로 옮길 때 제기되는 질문은 해석은 원작의 의도를 어떻게 얼마나 충실하게 답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해석이다. 하지만 이 글은 영화가 소설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영화가 소설을 해석한 내용이며, 해석의 원리로서 정치적 인식이다. 이 글에서 '일그러진 영웅'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해석한 원리로서 정치적 인식은 정치학의 이론에 입각한 이해가 아니다. 단순히 말해서 이 글에서 명시하는 정치적인 의미는 이어령에 의해서 표상된 한병태 내면의 세계를 조명하는 실존적인 이해에 대한 대비적 의미를 지닌 관점에서 편장완의 이해에 근거한다면 권력을 지향하는 욕망 또는 의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상징한다.⁷⁾

이 글의 방법론적 절차는 위에서 제시한 정치적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비평적 성찰이다. 이 글이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갖는 물음은 세 가지다. 첫째 기존의 해석은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바라보는 정치적 시각의 과격성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까? 즉 기존의 해석들은 문자 텍스트를 영상 텍스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변형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까? 둘째 기존의 해석은 일그러진 영웅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한병태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엄석대가, 병태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한병태가, 감독의 시각에서

7) 대담: 박종원 vs 편장완, 『박종원의 영화세계, 혹은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 현대미학사, 1995년 2월 4일, 64쪽. 편장완에 근거해서 '권력을 지향하는 욕망이나 의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필자는 아무런 설명을 첨가하거나 개념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편장완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는 인간의 본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이 지향하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의 아무런 첨가 없이 순수하게 권력을 지향하는 욕망이나 의지로 바라볼 때 일그러짐의 모습이 분명하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바라볼 때 6학년 담임선생이 일그러진 영웅임을 인식했을까? 셋째, 기존의 해석은 감독이 한병태와 병팔에 덧입힌 인간성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까? 다시 말해서 소설과 영화가 한병태와 병팔을 통해서 표상하는 우리시대의 굴절된 영웅의 모습을 충실하게 바라봤을까?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해석학적 원리로서 정치적 이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장에서 고찰되었지만 다른 해석들도 정치 실존적 이해를 근간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은 영화가 그려내는 정치적 해석의 과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2장에서 기존의 해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해석의 불충분성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은 영화가 그려내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참된 인식의 문제로 인도한다. 3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며, 영화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해석의 내용과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다각적 인식에 대해서 진술한다. 한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담겨진 감독의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고찰은 4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4장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의미규정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 해석

황영미는 소설이 영상화가 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삼 요소 가운데 ‘누가’와 ‘어떻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영미는 ‘무엇을’ 보다도 ‘누가’와 ‘어떻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원작소설을 영화화할 때 소재의 ‘무엇’은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원작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일인칭 소설 중에서 서술자의 권위적인 개입이 많이 나

타나는 화자서술이며 심리묘사가 두드러진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화의 이야기가 원작의 이야기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와 '어떻게'가 '스토리의 무엇'보다 중요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황영미는 서술자의 심리묘사에 서술자의 권위개입이 두드러짐을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 제시한다.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다수 혹은 비겁한 다수에 의해 짓밟힌 내 진실이 모진 한처럼 나를 버텨가게 해 준 것이었다.”⁹⁾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뻔대고 있었던 것과 같은 흡사한 착각이 일었다. 어쩌면 그때 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확박한 웃음에 압도된 굴종에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¹⁰⁾ “한 인간이 회개하는데 꼭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백정도 칼을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느닷없는 그들의 정의감이 미덥지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갑작스런 개종자나 극적인 전향자는 믿지 못하고 있다.”¹¹⁾ “나는 급했다. 그때 이미 내 관심은 그런 성공의 온당치 못한 과정이나 그걸 가능하게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저적인 풍요 쪽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나도, 어서 빨리 그들의 풍성한 식탁 모퉁이에 끼어들고 싶었다.”¹²⁾

-
- 8)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01, 54쪽.
 - 9)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5쪽;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01, 56쪽에서 재인용, 밑줄은 황영미 강조.
 - 10)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쪽;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01, 57쪽에서 재인용, 밑줄은 황영미 강조.
 - 11)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38-139 쪽;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01, 58쪽에서 재인용, 밑줄은 황영미 강조.
 - 1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38-139 쪽;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01, 58쪽에서 재인용, 밑줄은 황영미 강조.

위의 인용구를 통해서 황영미가 바라본 것은 서술자아와 경험자아 사이의 거리문제와의 관련성이다. 황영미의 의하면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왜냐하면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을 통해서 경험자아에 대해서 객관적인 위치를 점유하지만, 동시에 경험자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험자아의 경험이 서술자아의 경험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술자아가 경험자아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에 있어서 유지했던 객관적 위치는 서술자아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짐에 따라 상실하게 되고 서술자아가 더 이상 권위적인 위치에 서 있지 못하게 된다.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서술자아의 정의와 자유에 대한 무더짐이 경험자아가 선택한 자유대신 굴종을, 저항대신 참여의 경험이 준 달콤함에 기인했다고 변명으로 이어진다.¹³⁾

김중철은 한병태의 서술 속에 중첩된 서술자아와 경험자아의 관계의 문제를 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바라본다. 한병태의 회상에서 중첩되는 서술자와 경험자의 관계가 한병태의 회상의 세 가지 이야기의 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¹⁴⁾ 첫째 이야기는 30년전의 초등학교 5학년의 이야기로서 서술자아가 경험자아를 회상하며 경험자아의 배후에 위치한다. 둘째 이야기는 서술자아가 강릉역에서 엄석대의 초라한 몰락을 바라보는 현 시점의 이야기로서 30년 전의 경험자아의 경험이 현재의 서술자아 안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서술자아 안으로 경험자아가 전이된다고 해서 서술자아와 경험자아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이야기의 슬회 속에서 내재하는 서술자아의 객관화다.

13)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58쪽.

14)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408쪽.

세 이야기의 틀 거리 속에서 김중철이 주목하는 것은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대해서 갖는 간격과 거리다.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대해서 갖는 거리와 간격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서술양식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시선을 좇으며 그 내면을 반영하는 반영자-인물 서술의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¹⁵⁾ 둘째는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경험에 대해서 해설과 주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자아의 회상에서 발생하는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파편적일 수 있는 사건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면서 과거 사건의 현재화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김중철에 의하면 경험자아 밖에 있는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경험에 대해서 해설과 주석을 할 때 경험자가 겪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경험이 40대 중반의 한병태의 자아인식의 변방에 놓인 것이 아니라 자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개별적일 수 있는 두 현실의 경험(초등학교와 현실)이 역동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설 〈우리들의.....〉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속성과 그 반복적 순환성이라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성적 장치에 의해서이다.”¹⁷⁾

슈탄젤에 의하면 일인칭 소설에서 서술자아는 담론세계의 주체이며, 경험자아는 이야기세계의 주체다.¹⁸⁾ 담론의 주체로서 서술자아와 이야기 주체인 경험자아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개별적 주체다. 하지만

15)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412쪽.

16)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411-412쪽.

17)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410쪽.

18) F.K. Stanzel, *Theorie des Erzählens*, 『소설의 이론』, 김정신 옮김, 문학과비평사, 1992, 19쪽.

일인칭 서술에서 담론주체인 서술자아와 이야기 주체인 경험자아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위치한 개별적 주체로서 독립된, 분리된 자아의 주체성을 표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인칭 소설에서 담론주체인 서술자아는 이야기 주체인 경험자아 밖에 위치하지만 이야기 주체인 경험자아를 회상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슈탄젤에 따르면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대해서 주관적인 개입을 하는 이유는 경험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찰을 하려는 존재론적 동기에 기인한다.¹⁹⁾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대해서 갖는 존재론적 동기는 자아주체성의 확립과 관계된다.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개입하고 경험자아의 경험이 서술자아의 자기 반성적 고찰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서술자아의 자아주체성은 경험자아에서 획득한 정체성의 연장선속에 놓여 있음이 상기되며 이에 따라서 서술자아는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경험한다.²⁰⁾ 박기범에 의하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서술자아의 정체성의 위기는 서술자아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은 현재 ‘나’의 정체성과 화해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됨에서 시작하며 “나의 정체성의 위기가 그 회상의 고백과 동기가 된다.”²¹⁾

회상과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병태의 정체성의 위기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사이에서 부유하는 불안이다. 한병태의 우월의식은 소년시

19) F.K. Stanzel, *Theorie des Erzählens*, 『소설의 이론』, 김정신 옮김, 문학과비평사, 1992, 145쪽.

20)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50쪽.

21)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50쪽.

기부터 장년시기까지 관통한다. 이문열은 소년 한병태가 서울의 일류학교에서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다는 것과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상을 받았으며²²⁾ 시골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류 고등학교, 일류대학, 대기업입사 및 고급 세일즈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서술한다. 반면에 한병태의 열등감의 근거는 지적인 우월감이 좌절될 때 발생한다. 한병태에게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엄석대가 만든 그의 왕국이라는 현실과 사회현실에서 느끼는 가치박탈감이다. 한병태의 말을 들어보자.

“석대와와의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내가 은근히 믿었던 공부 쪽에서 왔다. 석대와 싸움을 시작하면서 나는 먼저 성적으로 그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리라 고 별러 왔다..... 내가 공부 쪽에 자신감을 가졌던 데에는 그 만한 까닭이 있었다. 서울의 학교와 그 학교의 격차로 보아, 거기서의 일등은 쉬운 것으로 보인다. 내 눈에는 아무래도 석대가 공부하는 아이로는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은근히 날짜까지 손꼽아 가며 시험을 기다렸으나 결과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놀랍게도 석대는 평균 98.5로 우리 반에서는 물론 전 학년서 1등 이었다. 나는 평균 92.6으로, 우리 반에서 겨우 2등을 차지했지만, 전 학년으로는 10등 바깥이었다.”²³⁾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날을 시점으로 시도 때도 없이 걸어오는 주먹 싸움이 었다. 그 무렵, 어떤 학급이든 공부의 석차처럼 주먹 싸움에도 등수가 매겨져 있게 마련이었고..... 원래의 싸움 등수는 대략 열서너 번째가 되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등수가 무시되고, 그때껏 내가 이긴 걸 인정하고 있던 아이들이 공공연히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었다..... 전 같으면 울거나 달아남으로써 진 것을 인정할 녀석들이 무엇을 믿는지 끝까지 버텨 냈고,.... 흠바닥에서 영겨 붙게 되면, 나는 어느 새 알지 못할 손길의 도움에 밀려 깔려 버리기 일쑤였다. 라이터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나는 반에서 아주 제쳐 놓은 조무래기 몇 명을 빼고는 싸움에서 꼴찌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다.”²⁴⁾

2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3쪽.

23)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36쪽.

24)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67쪽.

“학교에서는 일등을 차지하러던 전학 초기의 내 장한 결심과는 달리, 내 성적은 차츰차츰 떨어져 한 학기가 끝났을 때 겨우 중간을 웃돌 뿐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나는 먼저 아버지에게 내가 빠져있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무력감으로 전 같지 않게 뺄어져 있던 아버지는 무정하고 성의 없는 담임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못난 자식 누구 일을 누구더러 해 달라는 거야? 힘이 모자라면 돌도 있고 막대기도 있잖아? 그보다 공부부터 이겨 놓고 봐. 그래도 아이들이 안 따르나.....” 나는...어머니에게...은근히 기대를 걸어 보았지만, 다 결국은 부질 없는 것이었다. “너는 애가 왜 그리 좀스럽고 샘이 많으니? 그리고 공부는 또 그게 뭐야? 도대체 너 왜 그래?...“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라기 시작했다.....그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절망을 넘어 허탈에 가까운 감정이었다.”²⁵⁾

“나는 그제서야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래 위의 궁궐 같이만 느껴지던 대기업은 점점 번창하기만 했고, 거기 남아 있던 옛 동료들은 대리로 과장으로 승진하여 반짝 반짝 윤기가 돌았다. 어떤 동창은 부동산에 손을 대 큰돈을 벌었고 오피상인가 뭔가 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는 용도도 수이 짐작되지 않는 어떤 상품으로 떼돈을 움켜쥐고 거들먹거렸다. 군인이 된 줄 알았던 동창은 난데없이 중앙 부처의 관찮은 자리에 올라 있었으며, 재수마저 실패해 이름뿐인 대학에 들어갔던 녀석은 어물쩍 미국 박사가 되어 제법 교수티를 내었다. 나는 급했다..... 그러나 그 조급함 이 나를 한층 더 곤궁 속에 빠져들게 했다. 겨우겨우 마련한 열아홉 평 아파트를 팔고, 이돈 저돈 마구 끌어 벌인 모험사업의 대리점은 나를 두 칸 전세방에 들어 앉은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실업자가 되어 한발 물러서서 보니, 세상이 한층 잘 보였다. 내가 갑자기 낮설고 이상한 곳으로 전학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전 학교에서의 실적이나 거기서 빛났던 내 자랑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어떤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 나왔다. ‘이런 세상이라면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반장이 되었을 것이다.’²⁶⁾

25)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73-76쪽.

26)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37-138쪽.

서술자이인 한병태에 의하면 경험자이인 한병태의 자존감의 회복은 엄석대에 대한 굴종에서 기인한다. 엄석대에 대한 저항의 결과 처절한 열등감을 맛보았던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굴복함으로 인해서 맛보았던 달콤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유리창 청소는 한병태가 엄석대의 품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보게 되는 달콤한 경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²⁷⁾ 다시 말해서 한병태에게 있어서 유리창 청소는 엄석대에게 저항하는 한편 그를 동경하는 모순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다. 이미 내면에서부터 엄석대에게 굴복할 준비가 되었으며, 실제로 굴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한병태를 알아본 듯이 엄석대는 가혹할 만큼 한병태를 다룬다. 다른 학생들이 청소한 유리창에 대해서는 유쾌하게 합격을 시켜주던 엄석대는 유독 한병태가 청소한 유리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합격을 시킨다,

그렇수록 한병태는 엄석대에 대한 저항의식은 사라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욱더 발생한다. 그리고 마침내 엄석대가 합격을 시켜주자 한병태는 엄석대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며, 다음날 “아끼던 샤프펜슬을 엄석대에게 줌으로서 그 감격을 나타냈다.”²⁸⁾ 그 이후로 한병태의 자신감은 급증하게 되고 반에서의 그의 사회적 위치는 일사천리로 회복된다. 반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한병태의 싸움 서열도 엄석대의 지지에 따라서 급상승하고 원래의 자기 위치보다 두 단계 높은 12번째까지 올라가며, 소위 왕따를 당하던 위치에서부터 학급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갖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됨에 따라 성적도 회복되어 2등을 되찾는다.²⁹⁾

27)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76쪽.

28)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84쪽.

29)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85-87쪽.

박기범은 한병태의 회상과 독백이 즉,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에 끊임없는 얽히는 역동적 관련성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이중적 태도가 인간 사회에서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⁰⁾고 이해한다. 박기범의 해석은 한병태에게서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속성과 그 반복적 순환성의 메시지”를 읽어가는 김중철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황영미의 해석은 이들과 약간 달라진다. 황영미는 “현실에서의 정의와 자유에 대한 무더짐이 경험자아가 선택한 자유 대신 굴종을, 저항대신 참여의 경험이 준 달콤함에 기인했다고 변명”함으로써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엄석대에 대한 한병태의 저항과 굴종 및 참여에 대해서 황영미-김중철-박기범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황영미의 해석에는 현실에서 소위 지식인이 누리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의 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배반이라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고, 김중철-박기범의 해석에는 그것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해석은 정당할 것일까? 엄석대에 대한 한병태의 저항과 굴종 그리고 엄석대의 권위를 수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개인이 불의한 집단의 힘 앞에 구부러지는 모습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소설에서 서술자이인 한병태는 정치적 현실에서 침묵한 비겁한 지식인이 아니라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지만 경쟁사회에서 뒤쳐진, 열등감에 빠진 개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그러한 개인

30)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51쪽.

인 서술자아인 한병태가 경험자아인 한병태에게 자유의 이상을 추구하는 회상을 부여함으로써 서술자아인 한병태는 불의에 저항했으나 결국에는 불의에 굴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얻게 된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저항 의지를 잃어버린 지식인의 표상이 된다. 서술자아인 한병태가 경험자아인 한병태에게 부여한 자유의 이상을 추구한 유일한 근거는 서술자아인 한병태의 기억이다. 서술자아인 한병태가 경험자아인 한병태에게 그러한 기억을 부여함으로써 서술자아 한병태는 자기 열등감의 실체대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병태의 기억에 따르면 물 당번을 거부한 것도, 엄석대의 묵시적인 요구에 굴복해서 아버지의 라이터를 엄석대에게 바친 병조를 위해서 엄석대와 대립각을 세운 이면에는 엄석대가 세운 환경과 질서가 그동안 옳다고 배운 것들과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라는 신념에 기인한다. 즉 한병태가 기억하는 것은 5학년 2반이라는 엄석대의 왕국에는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과 그것은 “합리와 자유”에 상충하는 것이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병태는 어떻게 거대한 불의에 대립해서 합리와 자유를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을 개입시키는 것이었다.

한병태가 엄석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자기의 신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5학년 2반의 현실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엄석대를 배제한 채 학생들이 자유롭게 엄석대에 대한 비판을 쓰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 절차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을 개입시킨 한병태의 선택은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시간이

31)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24-25쪽.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병태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종이에 한병태에 대한 온갖 나쁜 말과 비리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한병태는 이후 모든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으며³²⁾, 심지어 담임선생님에게조차도 엄석대를 질투한 나머지 엄석대를 중상 모략하는 학생으로 인식되었다.³³⁾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한병태는 이후 힘든 싸움에 지쳐 마침내 엄석대의 질서에 귀속되고 만다. 그렇다면 불의한 세력에 맞서다 구부러지는 한병태의 투쟁은 정치 권력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병태의 투쟁을 권력투쟁의 속성과 권력의 참여에 의한 힘의 소유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병태가 엄석대의 권위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한병태가 엄석대로부터 받은 혜택은 원래 자신의 위치 - 반에서의 싸움의 서열 및 학교 등수 - 를 찾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의 회복이다. 한편 세상에서 밀려난 좌절감에 빠져있는 서술자이인 한병태의 모습은 정치 권력의 투쟁과 무관하다. 한병태의 현재적 위치는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세상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안일함이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병태의 서술자이는 나름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엘리트로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자신보다 못했던 동료들의 성공에 대해서 갖는 열등감과 자괴감을 갖고 있는 소시민적인 자아의식이다.

방민호는 한병태의 굴종에서 “저항의 근거를 거세당한 지식인의 묘사가 압권”이라고 감탄하면서 거기에서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을 언급한

3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66-76쪽.

33)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54-66쪽.

다,³⁴⁾ 하지만 서술자아의 한병태는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다 현실에서 좌절하고 굴절된 지식인의 모습과 상응하지 않다. 경험자아의 한병태의 자의식 역시 서술자아의 한병태의 자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부여한 모습은 교활한 권력자와 그를 뒷받침하는 부정한 집단의 체제에 맞선 한 개인의 자유, 정의를 위한 투쟁이 구부러질 수밖에 현실성이다.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게 부여한 그러한 현실성은 서술자아의 열등감과 자괴감을 감추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집단 뒤에 숨어서 집단을 통제하는 교활한 권력자인 엄석대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함과 더불어 끌리는-을 대다수 지식인의 이율배반적인 속성과 상응하게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갖게 만든다. 그렇다면 정말 서술자아인 한병태는 의식의 강함과 의지의 나약함의 모순을 갖고 있는 지식인의 표상인가?

3.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 해석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치적 해석을 한다. 소설에 대한 영화의 정치적인 해석은 원작에 없는 영팔을 등장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병태와 엄석대, 5학년 및 6학년 담임선생님 및 학교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 한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원작에 가한 철저한 정치적 해석의 중심에는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다각적 인식이 놓여있다. 원작에 의

34) 방민호, 『비정한 권력의 비극적 반복』,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17쪽.

하면 한병태에 있어서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다. 엄석대는 추락한 한병태를 원래의 위치로, 아니 자기 다음의 위치로 고양시켜주기 때문에 한병태의 영웅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가 아니다. ‘일그러진 영웅’은 한병태와 6학년 담임선생이다. 영팔에게 있어서 한병태가 ‘일그러진 영웅’이며, 6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담임선생이 ‘일그러진 영웅’이기 때문이다.

한명환은 한병태의 의식의 복잡성의 양면 가치적 탐구는 소아병적 획일성을 낳는다는 이어령의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한다.³⁵⁾ 한명환에 의하면 한병태의 양면가치성이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현실, 즉 독재와 자유, 보수와 진보의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가치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문열의 자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또한 이문열의 가치유보적인 태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선택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명환은 80년대의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대중들이 이문열처럼 “영거주춤”³⁶⁾ 즉 기성화의 논리를 선택한 이유를 소설에서 짐작할 수 있다고 생

35) 이어령, 『도식성을 벗어난 높은 문학적 경지』,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07쪽.

36) 이문열은 자신의 창작의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내 행동의 모호성 같은 것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때의 정권이 정통성도 정당성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영거주춤했던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가와 관련해서 소위 ‘기성화’의 논리, ‘어찌됐건 기정사실로, 헌법을 장악한 정권으로 돼 버렸다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쌀은 이미 밥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과정에는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기성화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의 약속만 지키다면 이미 일어난 것은 어쩔수 없다는 기분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다른 하나는 대안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정통성 없는 체제에 대해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성에 대해 나는 믿지를 못한 거죠.... 80년대를 말하자면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태도랄지 취향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뭉뚱그려 진보 혹은 보수라고 말할 때의 개념처럼 말이죠. 내가 자신 있게 버

각한다. “이 소설을 통해서 개혁적 민주화 운동을 소아적 집단적 행위로 생각하게 하는 비판의식마저 갖게 되는 현상은 작가가 언급한 창작의도와 무관하지 않다.”³⁷⁾

한명환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병태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여기서 한명환이 주목하는 것은 한병태가 놓인 현실인 새 담임과 교실이 내포하는 알레고리와 한병태의 자의식을 통해서 바라본 존재론적 모순의 악순환이 반영하는 알레고리다. 새 담임, 교실, 존재론적 모순의 알레고리는 한병태가 위치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의 틀이다. 그렇다면 한명환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정치적 해석의 틀인 새 담임, 교실, 존재론적 모순의 알레고리는 일그러진 영웅과 관련해서 원작이 갖고 있는 모호성을 극복했을까? 다시 말해서 한명환의 인식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의 깊이에 닿아있을까?

한명환에 의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은 한병태다. 하지만 서사적 주체를 이끄는 것은 카메라다.³⁸⁾ 카메라를 통해서 관객들은 한병태에 함유된 자신들의 실존을 읽어간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원작에 없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관객들은 한병태와 주변인의 모습, 즉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조망하는 가운데 자기 판단을 하도록 유도되며 그때 개개인은 한병태와 함유된 80년대 실존을 공유한다.³⁹⁾ 한명환은 한병태

털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박윤석, 『부악문원 탐방』, 『신동아』 (1998)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 - 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28-29 쪽에서 재인용.)

37)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 - 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29쪽.

38)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44쪽.

의 개인적 회상의 사건을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읽어간다. 따라서 한명환은 영화가 원작에 가한 비평적 장치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명환은 영화가 해석한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할까?

한명환에 의하면 소설에서 한병태에게 “일그러진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는 엄석대의 모습은 의리의 존재, 집단적 불안·공포와 개인의 이기심, 비겁성, 배반에 대한 죄책감이 남긴 개인적 외상(trauma)의 다른 이름이다.”⁴⁰⁾ 그렇다면 영화에서 ‘일그러진 영웅’은 누구인가? 한명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표명하지 않는다. 한명환만이 아니다. 영팔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는 박기범도, 그리고 황영미, 김중철도 누가 일그러진 영웅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다. 필자는 이들이 엄석대를 영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이들이 엄석대를 영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영화가 삽입한 비평장치를 간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한병태와 서울학교 학생의 이별장면, 기차길에서 표현되는 한병태와 영팔 및 엄석대의 모습, 엄석대와 한병태 사이의 형제의식, 엄석대의 하반신과 한병태의 상반신의 결합의 의미 등에 대해서 깊은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웅에 대한 인식이 소설과 영화 모두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소설에서 한병태의 영웅은 엄석대임이 분명하다. 엄석대는 교실이라는 현실에서 추락한 한병태를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 주는, 즉 절망에 빠진 한병태를 구원해내는 영웅이다. 그렇다면 영화에서도 한병태를 구원할 영웅이 엄석대인가? 아니다. 엄석대는 한병태를

39)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 - 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44쪽.

40)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 - 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37쪽.

구원할 영웅이 아니다. 한병태가 영웅이다.

한병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한병태가 아버지를 따라서 단순하게 시골학교로 전학 간 서울학생이 아니라는 것과 영팔이 표상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결조건에 대해서 영화는 단순 명쾌하게 설명한다. 한병태는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로 전학 가는 것이 아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받고 파송 받는다고 설정한다. 따라서 영화는 한병태가 서울의 학생들과 이별하는 장면을 비장하게 그려낸다. 모든 남학생들이 일렬로 도열한 채 한 여학생으로부터 자유 (Liberty)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을 건네받는다.

영화 속의 한병태는 소설속의 한병태처럼 치기어린 우쭐함으로 시작했다가 자신감을 상실한 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유하는 인물이 아니다. 80년대 운동권이 독재와 싸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든 것처럼 영화 속의 경험자이인 한병태는 그렇게 엄석대가 있는 현실로 들어선다. 또한 영화는 서술자이인 한병태를 등장시킬 때 꿈꿨던 민주사회의 현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쇠락한 삶을 추스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해하는 문장이 “자유가 위협받던 시기에 소수의 세대만이 자유를 지켜왔다”는 것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의식의 저편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미련처럼 남아있는 모습을 조명한다. 서술자이로서의 한병태는 운동권의 작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엄석대가 암중에서 활약하는 폐쇄된 사회인 교실에 자유를 가져오기 위한 한병태의 행동은 영팔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 영화는 한병태를 따라오던 영팔이 어느덧 한병태와 나란히 기차길을 따라서 걷는 장면을 조명한다. 기차길을 따라서 나란히 걷던 한병태는 자기를 따라

은 영팔에게 학교에서 만나자하고 영팔은 좋아서 뒤로 돌아서 가다가 넘어진다. 영화는 넘어진 영팔을 바라보는 한병태를 비춰준 후 한병태가 서울의 학교를 떠날 때 학생들이 도열한 채 한 여학생으로부터 자유가 새겨진 동전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 장면은 잠자리에서 자유가 새겨진 동전(한병태가 받은 미션)을 확인하고 돌아누워 있는 한병태를 아버지가 깨워 급장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급장이 되어야 한다고 야단치는 모습과 이어진다.

한병태는 엄석대와 맞서기로 결정하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엄석대에게 도전한다. 그 모습을 본 영팔은 한병태에게 박수를 쳐준다.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실을 개혁 하려던 한병태의 노력이 실패하자 영팔은 한 병태에게 탄피를 건네준다. 투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어 한병태는 엄석대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고자 저금통을 깨어 학생들을 포섭할 자금을 확보한다. 한병태는 학생들을 극장에 데려가고 자장면을 사주며 연필을 주고 그들을 포섭한다. 하지만 엄석대를 여전히 무서워하는 학생들은 한병태가 준 연필을 엄석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한병태의 포섭은 실패한다.

하지만 한병태가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취한 정치적 행보가 완전히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한병태의 잠정적 힘을 알아본 엄석대가 한병태를 포섭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엄석대는 암중으로 선도부를 통해서 한병태를 린치하고, 동시에 선도부로부터 그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한병태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엄석대의 은혜에 감격한 한병태는 머리를 깎음으로 엄석대의 무리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자발적으로 엄석대를 위해 물당반을 수행하고 가장 아끼는 샤프를 엄석대에게 준다. 이에 엄석대는 한병태와 술잔을 함께 마시는 형제의식을 거행하고 한병태는 답례로 자유가 새겨진 동전을 불에 던져 버린다.

한편 영팔은 변해버린 한병태에게 탄피를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한병태는 잃어버렸다고 응답한다. 박기범에 의하면 영팔은 불의에 일관성 있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인물이다.⁴¹⁾ 그렇기에 영팔은 엄석대와 동화 된 한 병태를 '너와는 안 놀아'라고 거부하며, 담임선생님의 파워에 겁을 먹어서 엄석대의 비리를 성토했던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나빠' 라고 외친다. 박기범은 독재시대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보나 광인'이라며 감독이 영팔을 어눌한 말의 소유자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기범에 따르면 영팔은 감독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감독은 영팔을 통해서 불의한 힘 앞에 순종하고, 다른 힘의 등장에 의해서 밀려난 힘을 질타하는 표리부동한 민중을 비판 한다.

하지만 영팔의 위치와 존재는 힘 앞에 저항하지 않는, 비겁한 대중을 비판하는 감독의 시선만이 아니다. 한병태의 정치적 행동과 관련해서 영팔의 존재와 위치는 일그러진 영웅이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영팔은 한병태를 증언한다. 영팔이 기다려온 영웅이 한병태임을 지칭하고, 자기 영웅인 한병태가 타파해야 할 불의한 권력인 엄석대와 일체감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일그러졌음을 증언한다. 영화는 영팔이 증언하는 한병태의 가벼움을 기차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기차길을 걷는 영팔은 자기를 따라오는 한병태를 외면한다. 영팔의 외면 속에 결국 한병태는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장면은 이어져서 한병태는 엄석대와 기차길에서 동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기차길은 엄석대의 진화를 표상하기도 한다. 달려오는 기차길에 누워서 중학생과 담력을 겨루는 장면에서 엄석대에게 패한 중학생 상급자가 엄석대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영화는 엄석대가 교실이라는 한정

41)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1쪽.

된 공간에서 담임선생의 목인아래, 담임이 양도한 권력에 의거한 허울 뿐인 권력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힘을 획득한 폭력 조직의 수장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영화는 소설에 없는 모습, 즉 조직 폭력의 수장이 부하들을 구타하듯이 엄석대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구타하며, 토끼의 배를 가르며, 술을 마시고 여자를 불러 여흥을 즐기는 모습을 부여한 것이다.

영광의 영웅이었던 한병태의 일그러짐은 자신을 엄석대와 동일시함에서 발생한다. 아니 자기와 동일시한 한병태를 엄석대가 놓아주지 않음에 의해서 강화된다. 6학년 담임선생의 폭력에 의해서 교실 밖으로 쫓겨나간 엄석대는 길거리에서 3.15 부정선거를 지탄하는 시위가 한창일 때 교실에 불을 지른다. 박기범, 한명환은 교실에 불을 지르는 엄석대의 모습을 그가 표상하는 폭력성으로 본다. 하지만 교실을 불 지르는 장면은 엄석대의 폭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엄석대가 교실에 불을 지르지만 영화는 다음 장면에서 엄석대의 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화는 엄석대가 불을 지는 교실은 엄석대가 지배했던 5학년 2반 교실이 아니라 가상의 교실임을 암시한다. 가상의 교실에 불을 지르는 장면은 엄석대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실제로 영화는 엄석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영화가 보여주는 엄석대의 모습은 그의 하반신이다. 이 장면에 이어서 영화는 한병태의 상반신을 보여준다. 두 장면을 연이어 보여줌으로 영화는 교실에 불을 놓는 장면과 관련해서 한병태와 엄석대를 합병해서 보기를 요청한다.

영화는 한병태의 상반신과 엄석대의 하반신을 합병함으로 말미암아 폭력에 의해서 교실을 장악한 담임선생님의 공간을 타파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가 엄석대와 한병태를 합성하려는 의도는 엄석대와

한병태의 합체가 선이어서가 아니다. 엄석대와 한병태의 합체는 분명히 악이다. 조폭으로 진화하는 엄석대와 자유의 사도로 파송된 미션을 버리고 엄석대와 일치하는 한 병태는 선 일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엄석대와 한병태를 합체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합쳐져야 또 다른 6학년 담임선생님에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6학년 담임선생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부패한 정치인으로 출현하는 것은 예상 밖의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술자아 앞에 등장한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은 경험자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선생님의 본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험자아의 인식에는 엄석대의 왕국을 무너뜨린 선생님의 모습은 정의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식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인식에 각인된 6학년 담임선생의 현재적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경험자아에 인식된 엄석대 왕국을 붕괴시킨 6학년 담임선생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될 때 6학년 담임선생이 정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6학년 담임선생이 정의가 아닌 것은 엄석대를 축출하는 그의 모습에 있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6학년 담임선생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영화에서 6학년 담임선생은 엄석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고 선생님의 폭력성은 교실전체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간다. 담임선생의 폭력에 공포심을 느낀 아이들은 담임선생이 지시하는 대로 엄석대를 공개적으로 성토했음으로서 집단의 광기가 증폭된다.

한명환은 영화의 이 장면을 인민재판을 연상시킬 만큼 비교육적이라고 평가한다.⁴²⁾ 한명환은 최근에 영화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42)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46쪽.

를 통해서 6학년 담임선생의 모습을 본 많은 학생들은 영화가 교사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이상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교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특히 교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일 경우 그 반응 정도가 크다고 보도한다.⁴³⁾한명환이 주목한 것처럼 많은 학생들은 잔인하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엄석대를 추출하는 6학년 담임선생에게서 영웅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설속의 6학년 담임선생은 교실에서 쫓겨난 엄석대가 밖에서 아이들을 위협할 때 스스로 대처할 방법과 능력을 키워주기에 엄석대에게 억눌려 있던 아이들을 구출해 내는 영웅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6학년 담임선생은 반 아이들을 구출해 내는 영웅이 아니다.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정죄하는 담임선생은 정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6학년 담임선생이 유권자를 향해서 허리를 조아리는 정치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웅의 이미지 뒤에 감춰진 그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6학년 담임의 모습은 권력의 힘을 맞본 자가 권력을 구하기 위해서 취하는 비열한, 저급한 인격의 모습일 뿐이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5학년 친구들의 모습도 대동소이하다. 돈과 권력의 위력을 맞본 세속적인 인간상일 뿐이다.

서술자이인 한병태는 그렇지 않다. 한병태는 어딘가에 있을 엄석대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엄석대는 한병태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엄석대는 한병태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영웅이다. 영화가 소설에서 한병태가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엄석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조아리는 6학년 담임선생님의 일그러진

43)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회, 2001, 27쪽.

모습과 엄석대의 이름으로 두 개의 화환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장면으로 대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5학년 2반 교실에서는 축출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만든 교실에서 엄석대의 건재함을 보여줌으로 한병태에게 엄석대가 여전히 영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에서는 여전히 엄석대가 한병태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남았지만 영화는 그렇게 일그러진 한병태가 영팔에게, 일그러진 한병태에게 엄석대가 영웅이었음을 제시한다.

4. 일그러진 영웅의 단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박종원에 의하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원래 기획의도 대로 87년에 제작되었다면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의 기능을 수행했겠지만, 91년도에 제작되었기에 독재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왜곡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굴절된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다.”⁴⁴⁾ 굴절된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다는 박종원의 말은 박수연과 옥미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박수연에 의하면 한병태의 비관적인 현실과 엄석대의 권력을 무너뜨린 담임선생이 국회의원이라는 또 다른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던지는 화두는 권력은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부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한편 옥미나는 영화가 가리키는 것은 4.19 세대가 주역이 된 지금에도

44) 박종원, 『시나리오에서 스크린까지』, 1999, 422쪽(옥미나, 『시대를 투영하기: 박종원 감독론』, 『영상예술연구』 1, 영상예술학회, 2001, 288쪽에서 재인용).

45) 박수연, 『영화, 영화 기법의 담론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예시학회, 1999, 178-179쪽.

기본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냉소주의가 표현된 현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⁴⁶⁾

박종원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그려내는 영웅의 일그러짐은 박수연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 없는 삶의 지향성을, 옥미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냉소주의를 표상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소설이 한병태의 일그러진 영웅으로서 엄석대를 그려내는 것을 영화가 영팔을 통해서 한병태가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엄석대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에 기초해서 합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병태를 조명할 이유가 없다. 만약 박수연과 옥미나의 판단이 옳다면 영화는 한병태를 향해서 자신의 견재함을 보여주며, 힘을 합쳐서 합법적 폭력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엄석대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종원에 의하면 영팔은 굴절된 지식인을 표상하는 한병태와,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를 표상하는 엄석대와,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로 변절되는 6학년 담임선생과 대비되는 인물이다. 박종원에 의하면 영팔은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세 인물에 없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 박종원이 영팔을 바보스러운 모습의 일관성 있는 인물로서 그린 것은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성에 근거한 것이다. 박종원 따르면 아무리 멋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식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인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인간은 용기가 있으며 동시에 일관성을 가진 존재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46) 옥미나, 『시대를 투영하기: 박종원 감독론』, 287쪽.

47) 대담: 박종원 vs 편장원, 『박종원의 영화세계, 혹은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 현대미술사, 1995, 65쪽.

분명히 박종원은 영팔을 일관성 있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기에 영팔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다. 박종원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5학년 2반 학생 전체다. 왜냐하면 “엄석대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이유와 책임은 엄석대보다 5학년 2반 아이들에게 더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종원은 5학년 2반 학생 전체에 차별을 가하는 6학년 담임선생에 대해서 차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종원은 영팔을 엄석대, 한병태, 6학년 담임선생과 대비되는 인간상을 투영할 뿐 아니라 독재를 허용하는 책임을 진 5학년 2반 학생 전체와 대비를 한다.

그렇다면 정말 영팔은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스스로 엄석대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한병태에게 의지하는 영팔은 건강한 인격적 주체일까? 담임선생이 엄석대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만 담임선생님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엄석대를 인민재판식으로 성토하는 친구들에게 고작 울면서 너희들도 나빠하는 영팔의 모습은 80년대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바른말을 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표상하는 것일까? 영화가 표상하는 시대상을 염두에 둔다면 감독의 의도와 달리 영팔은 바람직한 인간성을 상징하기 보다는 비겁한 대중의 모습 상기시킨다.

박종원이 생각한 것처럼 엄석대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하는 요인이 되는 비겁한 대중은 5학년 2반 전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갖고 있으나 스스로 저항할 의지와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한 영팔에게도 독재정권에 대한 일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5학년 2반 전체 학생들과 영팔이 대비되는 것은 전자는 엄석대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조력자라는 반면에 후자는 엄석대의 왕국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막연히 누군가 엄석대를 무너뜨리

고 5학년 2반을 구원할 영웅을 기다리는 대중을 표상한다는 점이다.

영화는 한병태의 일그러짐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영화에서는 모두가 일그러져 있다. 한병태의 아버지도, 한병태도, 엄석대도, 6학년 담임선생도 일그러져 있다. 영화가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학생들 위에 군림했던 그가 또 다른 합법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비굴하게 구부리면서 다가오는 모습과 엄석대가 두 개의 회환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왕국에서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여전히 5학년 2반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의 비겁성이야 말로 엄석대가 자신만의 교실에서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한 작품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정치적인 해석의 근거는 ‘영웅의 일그러짐’에 대한 이해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영화는 소설이 한병태의 영웅으로써 엄석대를 상징하고, 반 아이들의 영웅으로써 6학년 담임선생을 상징한 것을 정정한다. 물론 소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6학년 담임선생은 엄석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반 아이들에게 길러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엄석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 아이들에게는 영웅이다. 영화가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표상을 정정한 이유는 소설이 한병태의 성격에 부여한 모호성에 기인한다.

영화는 한병태에 대해서 소설이 설정한 모호성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영화는 서술자이인 한병태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으나 현실과 타협한 인물로 설정하고 경험자이인 한병태를 교실을 해방시키는 미션을 부여받고 파송 받은 존재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영팔을 등장시킴으로서 민주화의 투사로서 파송된 한병태가

일그러진 영웅이었음을, 엄석대를 교실 밖으로 추출함으로 말미암아 교실을 해방시킨 6학년 담임선생이 독재자였음을, 그리고 폭력과 공포를 교실 안으로 가져온 담임선생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병태와 엄석대가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 한다.

영화가 한병태와 엄석대가 합쳐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악일 지라도 더 큰 악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일그러진 현실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대중의 비겁함이 합법적 폭력을 허용하였듯이 민주와 자유를 지향한다는 한병태가 갖고 있는 의식의 미련이 엄석대라는 또 다른 폭력의 수용에 대한 기울어짐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병태의 일그러짐 속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의 속성과 이에 따른 세속적 인간상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혐오와 저항에서도 불구하고 폭력을 향한 미련과 향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실존의 가벼움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박종원,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대동홍업제작 작품, 1992.

2. 논문

김종원,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원작소설과의 미적거리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학회지』 12, 한국콘텐츠학회, 2012, 151-159쪽.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401-426쪽.

대담: 박종원 vs 편장완, 『박종원의 영화세계, 혹은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 현대미술사, 1995년 2월 4일, 63-71쪽.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수연, 『영화, 영화 기법의 담론들-『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10권, 문예시학회, 1999, 163-181쪽.

방민호, 『비정한 권력의 비극적 반복』,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10-420쪽.

옥미나, 『시대를 투영하기: 박종원 감독론』, 『영상예술연구』 1, 영상예술학회, 2001, 285-303쪽.

이어령, 『도식성을 벗어난 높은 문학적 경지』, 권영민 엮음, 『이상 문학상 21년』, 문학사상사, 1997, 406-407쪽.

한명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각색영화의 비교 - 작품수용과 관련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26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01, 23-52쪽.

한원균, 『작품해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143-157쪽.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2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01, 53-74쪽.

3. 단행본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2007.

F.K. Stanzel, *Theorie des Erzählens*, 『소설의 이론』, 김정신 옮김, 문학과비평사, 1992.

Abstract

A Political Interpretation of *Our Twisted Hero* in Novel and its film

Lee, Shin-Hyung(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it clear that the film version of *Our Twisted Hero* has politically interpreted the novel *Our Twisted Hero*, the original copy for the same titled film. There are several articles which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and the film, and they have failed to catch the meaning of political dimension that the film extracts from the novel. The novel portrays Um Sukdae, who manipulates the fifth grade classroom, as the our twisted hero and the hero for Han Bungtae. But the film puts Han Bungtae as the our twisted hero for BungPal who is missing in the original copy.

Both the novel and film document how Han Bungtae stood against the power of Um Suktae and how Han Bungtae kneeled to Um Sukdae, as well as the collapse of the kingdom of Um Suktae. But both have different stories about Han Bungtae and the sixth grade teacher who collapsed the kingdom of Um Suktae's fifth grade classroom. Novel simply depicts Han Bungtae as the fifth grade city boy who was transferred to country with a democratic society experience, but film depicts that the city school classmate gave him a mission to free the classroom.

In addition, the novel depicts that the sixth grade teacher peacefully and democratically liberates the classroom from the hands of Um Suktae, but the film depicts that the sixth grade teacher liberating the classroom by the force, and his violence terrified the students and the whole classroom. So, the question is; why did the film change the main characters' personalities? What caused the film come to term with the mission for liberating the classroom, if it needs to be done by force? The film needed to include the following explanation in order to clear the ambiguity of the novel in terms of the hero. Han Bungtae had to be the hero to liberate classroom from Um Suktae. Han Bungtae should have liberated the classroom. But he could not. The film documents that Han Bungtae has failed in his mission and became a twisted hero. Several research have failed to notice that Han Bungtae was a twisted

202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hero in the film. So, in this paper I delve into the film and show who the hero is and why he became a twist hero.

(Key Words: Our Twisted Hero, Cleaning Window, Railroad, Coin engraved with A Letter Liberty, An Empty Cartridge, Classroom)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